

카프카와 산재보험, 프라하의 공장들

오재 회원, 독문학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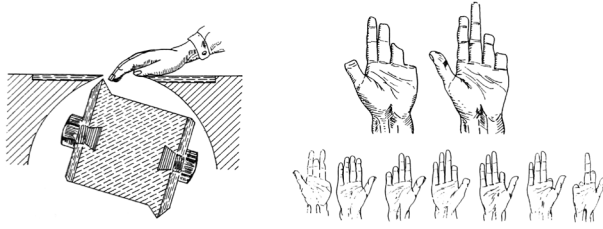
작년 12월, 2024년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883-1924) 사망 100주기를 맞아 프라하 블타바 강가의 카프카 박물관에 다녀왔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실내에서 각각 한 줄기 빛을 받아 빛나는 원고와 편지 등을 살피던 중, 벽에 걸린 1900년대 초 어느 방직공장의 흑백사진과 바로 그 위에 걸린, 카프카가 친구 막스 브로트 Max Brot (1884-1968)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와 마주쳤다.

[...] 내가 근무하는 [...] 지역사무소에서는 [...]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구조물에서 떨어지고,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모든 들보가 쓰러지고, 제방이 헐거워지고, 모든 사다리가 미끄러지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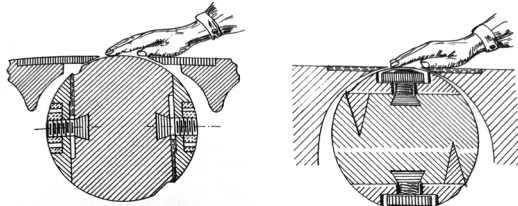
산재보험회사 직원, 카프카

다른 설명판에선 법학 전공자 카프카가 보험회사 근무시 했던 구체 활동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1908년 산재 및 직업병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적인 예방법을 고안하고, 1911년 체코신문에 산재와 직업병 예방 조치의 중요성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의 필요성을 기고하며, 1913년 산재 관련 국제대회에서 산업안전 관리 담당 독립조직 설치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1922년에는 회사 수석비서로 승진하나 건강상 이유(결핵)로 조기 은퇴를 요청하게 된다. 회사 일과 글쓰기 병행으로 늘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고, 결핵에 쇠약해지면서도 그는 두 가지 일을 놓지 못했다. ‘그의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었나?’, ‘산재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직업병에 시달린 건 아닌가?’와 같은 생각은 박물관을 나와서도 이어졌다.

집에 돌아와 ‘카프카와 산업재해’를 다룬 자료들을 찾아봤다. 부족한 작품 집필 시간과 갑갑한 관료제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의 삶 전반을 당시(1900년대 초반) 프라하의 급격한 산업화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 놓아본 건 처음이었다.



▲ 카프카가 기존의 대패기계 설계도와 대패 사용 중 절단된 손들을 스케치한 것¹⁾



40/41 Die runde Sicherheitsweile für Holzhobelmaschinen. Illustrationen aus Kafkas 'Unfallverhütungsmaßnahmen bei Holzhobelmaschinen'.

▲ 카프카가 자신이 새로 설계한 대패기계를 스케치한 것²⁾

변호사 울리히 피셔 Ulrich Fischer의 책 『석면: 기업가로서의 카프카 Asbest: Franz Kafka als Unternehmer』에 따르면, 카프카는 7년 동안 프라하 석면공장의 공동 소유주였다. 처남이 설립한 공장에, 카프카의 아버지가 카프카의 이름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법조인인 그는 차명 투자가 불법임을 알았기에 회사에 이를 알리진 않았으나, 때때로 공장 관리에도 참여한다.

물론 그는 석면공장의 책임감 있는 소유주는 아니었다. 그는 1917년 “공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엔진룸의 가스를 들이마신 적이 있다. [...] 비참한 공장이다.”³⁾라고 일기에 썼지만,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하진 않았다. 공장에는 방진복도 없었다. 작가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이중생활에 더해 공장 관리까지 삼중의 노동을 했지만 그가 가장 중요시 한 건 작가로서의 생활이었다.⁴⁾

보험회사 재직시 카프카로 돌아가, 눈에 띄는 이력은 직접 스케치해 1909년 연례 보고서에 담은 대패기계 설계도이다. 사각형 절단기가 있는 경우, 손의 상당 부분이 대패기계 내부로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형 절단기는 손상을 줄일 수 있다.


1) Franz Kafka, 『Tagebücher』, Hans-Gerd Koch(공저), Frankfurt am Main, 1990, 428쪽, Ulrich Fischer의 『Asbest: Franz Kafka als Unternehmer』, Wallstein Verlag, Göttingen, 2022. 130쪽에서 재인용, 번역은 글쓴이.
 2) 위의 글, 63쪽 참조.
 3) Franz Kafka, 『Tagebücher』, Hans-Gerd Koch(공저), Frankfurt am Main, 1990, 428쪽, Ulrich Fischer의 『Asbest: Franz Kafka als Unternehmer』, Wallstein Verlag, Göttingen, 2022. 130쪽에서 재인용, 번역은 글쓴이.
 4) Ulrich Fischer, 위의 책 참조.

카프카는 법학 지식과 글쓰기 실력으로 기관의 공식 성명과 연례 보고서 등을 작성해 업무 능력을 입증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았다.⁵⁾ 점차 그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되는데, 1914년 1차 대전이 겹치며 그의 업무량은 견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전쟁으로 군수 공장이 쉬없이 돌아가고, 산업재해가 증가하며, 새로운 산재보험 문제가 발생하며 카프카는 쉬지 못했다.⁶⁾ 그즈음 산재보험 회사 자체의 중요성 또한 전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기술의 진보가 결국 수많은 이들을 다치게 하거나 그들의 목숨을 잃게 한다’는 전쟁과 산업재해의 공통의 배경이 공적 논의의 장에 올라 전쟁 부상자와 산재 노동자의 연관성이 지적되기 시작하며, 결국 내무부 법령으로 “집으로 돌아온 전사들의 돌봄 Fürsorge für die heimkehrenden Krieger”을 위한 행정기관이 설립된다.⁷⁾ 국가 차원의 이런 시도는 전쟁 부상자를 서둘러 노동현장에 복귀시키고자 한 것이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근무 시간을 연장해가며 행정기관 부속 의료위원회에서 각종 영양소의 확장 및 건설을 담당하는 일을 맡는다.⁸⁾

1900년대 프라하의 공장과 지금 여기의 직업병

1900년대 초반 프라하의 도시 분위기와 노동현장을 염두에 둘 때 카프카의 작품은 사뭇 달리 읽힌다. 예컨대 소설 실종자 Der Verschollene (1927)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 거래처와는 전화와 전보로 아주 정확하고 끊임없는 연락을 유지해야 했다. [...] 전화부스의 문들이 열렸다 닫혔다 했으며, 벨소리가 정신이 혼미하도록 울려댔다. [...] 직원 하나가 문소리에도 개의치 않은 채 수화기를 귀에 밀착시켜주는 강철 밴드를 머리에 끼고 있었다.*⁹⁾

공장연합체 중개 사업장에서, 사람들은 전화 부스 안에 꼼짝 없이 갇혀 기계 앞을 벗어날 수 없다.¹⁰⁾ 이 대목을 읽고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지금의 콜센터였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1900년대 프라하 공장들의 안팎에 카프카를 재배치할 때, 어떤 노동환경은, 어떤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5) Gesine Bey, "Die Hölle des Büros", Berliner Zeitung, 06.05.2024 참조

6) 위의 기사 참조

7) Klaus Hermsdorf, "Franz Kafka und die Arbeiter-Unfall-Versicherungs-Anstalt", "Kafkas Fabriken", Marbacher Magazin 100/2002, 68쪽 참조

8) 위의 글, 69 쪽 참조

9) 프란츠 카프카, 이재황 옮김, 『실종자』, 문학동네, 2023, 전자책 2장.

10) Klaus Wagenbach, "Kafkas Fabriken", "Kafkas Fabriken", Marbacher Magazin 100/2002, 39쪽 참조



▲ 3월 23일 서울에서 2024체제전환운동정치대회가 열렸다. 250여명의 참여자들은 2024년 한국사회에서 체제전환운동이 가리켜야 할 방향과 함께 해야 할 실천에 대해 토론하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로 활동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사진 : 백승호